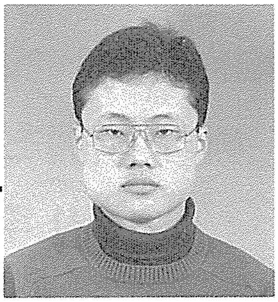
선진국의 모방 이제 끝났다



김 건 수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석사4기〉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중학교 2학년 쯤 과학고등학교가 생겼다는 소리를 들은 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그전에도 과학이란 것에 매력을 느꼈지만 과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신설중학교였기 때문에 실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나에게 과학고등학교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결국 입학하게 되었다. 나는 그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큰 고민은 하지 않았다.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당연하듯 화학과를 선택하였고, 대학원과정을 밟는 것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굳이 나에게 왜 대학원으로 진학했느냐고 묻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다 깊이있는 학문을 익히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주체가 되어 살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함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대학원에 들어와 처음 실험실생활을 하면서 대학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알고는 당황했었다. 고등학교때부터 시작한 기숙사생활이 어느덧 8년을 넘고 있지만 지금처럼 기숙사에 친숙함을 느끼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시간 되면 들어가 잠자고, 아침이면 세면하고 옷 입고 다시 실험실로 나오고… 친구들이나 선배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출근한다, 퇴근한다'라는 우스개 소리로 표현한다. 또한 실험실생활에서는 자신의 연구활동 외에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일이 있다. 이렇듯 대학원생활은 대학생활과는 달리 사회생활을 많이 반영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책임감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강의수강 및 연구활동을 하려니 정신차릴 틈이 없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대학원생활을 돌이켜본다면 분명히 대학때보다 한층 더 성숙해졌음을 느끼리라. 마치 고등학교때 Chem-study를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 대학교때 여러 전공과목을 배우면서 느낀 묘한 쾌감이 내 학문적 성숙도를 한 단계씩 올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책 및 기업활동은 눈에 보이는 득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과학을 외면해왔다. 만각(晩覺)이긴 하지만 근간 우리나라 정책당국에서 기초과학연구의 긴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뛰어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을 창조해야만 가능하다. 지난날의 발전은 선진국들의 과학기술을 모방하여 낮은 임금으로 제품을 만들어 기술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한계가 있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기초과학 육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배양이 절대적 필수조건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국가나 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 및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 기업,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겠지만 과학기술 발전에 관련된 분야는 과학자가 중심이 되어야한다.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 자긍심을 갖고 있고, 그 분야 발전의 중심인 권위자가 되고자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가끔 주위 사람들이 3D와 밀접하게 관련된 화학을 선택했느냐는 말을 한다. 물론 힘이 들기는 하지만 크게 개의치도 않고 굳이 애써 설명하려하지 않는다. 힘든 반응 하나가 진행되었을 때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ST